

기술유출은 기업생존 여탈 위협하는 범죄

첨단부, 건전한 경쟁 분위기 조성 위해 전력

첨단범죄수사부 이득홍 부장검사

최근 기술유출이 갈수록 빈발하고 있어 반도체, 휴대폰 등 첨단 신기술개발 핵심 주체인 벤처기업의 보안체계에 비상이 걸렸다. 기술유출 방법 역시 갈수록 첨단·전문화되고 있어 이를 방지하는 데 사운을 걸어야 할 지경이다. 기술유출은 비단 해당 기업의 피해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기술유출을 위한 국제 스파이 조직이 활개를 치고 있는 요즘 기술유출은 곧 국부유출로 이어진다. 이에 본지는 국부유출을 막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 이득홍 부장검사를 만나 기술유출의 심각성과 대응책 등 기술유출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Q ■ 최근 기술유출 빈도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첨단범죄수사부가 파악하고 있는 기술유출문제의 심각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A ■ 한 민간 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술유출범죄 피해액이 지난 7년 동안 수십 조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최근 우리부가 수사한 내용도 CDMA 휴대폰기술, 반도체 제조기술, TFT-LCD 컬러필터 제조기술 등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첨단핵심기술의 유출사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는 과거와는 달라진 우리 기업들의 기술력 향상에 대한 반증이겠지만, 기술유출은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첨단기업에 대한 투자심리 감소, 기술개발 의욕저해 등 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근래에는 국내 기업간의 무리한 수단 강구뿐만 아니라, 외국 경쟁업체가 기술인력에게 기술제공을 담보로 자금을 지원하거나 임원이 직접 국내에 들어와 기술인력의 전직을 교섭하는 사례도 발견되는 등 기술유출범죄가 전망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Q ■ 기술이 중요한 만큼 보호할 가치도 커졌습니다. 그럼에도 기술유출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기 위한 홍보나 보안교육 등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기술유출을 범죄행위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오히려 기술유출을 방조한 것은 아닐까요.

A ■ 피의자 수사를 하다보면 기술개발에 주도적 역할을 한 기술자들에게 '내가 관여하여 개발한 기술은 내 것'이라는 사고가 만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퇴직하는 기술자들이 소속회사의 영업비밀인 기술자료를 가져 나가는 것을 일종의 온정적 시각으로 제지하지 못해온 문화가 존재하였습니다. 최근에는 기술유출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수사기관에서 엄히 대처하자 기술인력 사이에서 오히려 기술유출 행위의 불가피성을 옹호하는 여론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기술유출은 기술자와 회사간 합의된 퇴직 계약을 위반하여 이루어지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행위의 결과로 한 기업이 도산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조직의 인적·물적 시설을 이용하여 개발한 기술은 엄연히 법적으로 기업의 것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술자들은 마치 자기 것인 양 기술유출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을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방향으로 활용한다면 단순한 손해를 끼치는 정도가 아니라 엄연한 범죄행위를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Q ■ 기술시장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술이 유출될 가능성도 커졌는데, 이에 대한 첨단부 혹은 국가 차원에서 마련하고 있는 대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A ■ 기술유출이 일단 발생하면 아무리 철저히 수사하여 유출자를 처벌하여도 유출된 기술을 완벽하게 회수할 수는 없습니다. 즉, 기술유출범죄 수사는 유출된 기술이 외국이나 경쟁업체에게 넘어가기 전에 유출자를 검거하는 신속·정확한 수사가 핵심입니다.

첨단범죄수사부는 지난해 10월 '기술유출범죄수사센터'를 설치하고 전담검사 2명 등 총 13명의 전담수사인력을 투입하여 기술유출사건을 신속하고도 효율성 있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해 7월 기술유출을 규율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대폭 강화된 내용으로 개정 시행되고 있어 기술유출 미수행위나 예비·음모행위를 엄중히 처벌할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한편, 친고죄로 규율되어 있던 기존 조항이 삭제되어 피해 회사의 고소 없이도 수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술유출이 개별업체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에 관한 문제라는 인식에 기반한 것입니다.

Q ■ 협회는 2년 전 첨단부와 함께 기술유출신고센터를 설립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 건수가 전무합니다. 기술이 유출된 것을 알아도 해결을 위한 시간과 비용이 너무 든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입니다. 이에 대한 첨단부의 견해와 기술유출의 신속한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A ■ 기술유출신고센터는 기업들이 그 실효성에 의문을 갖고 있어 활성화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벤처기업들도 자신들의 핵심자산인 기술을 지키려는 자의식이 훨씬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수사기관의 거듭된 단속으로 기술인력 사이에서도 기술유출이 범죄라는 인식이 뿌리내렸다고 봅니다.

기술유출범죄는 시간이 생명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민형사상 구제절차와 달리 사건 접수시 첨단부에서 즉시 수사를 전개하여 범죄자의 신명을 확보하고 유출된 기술을 압수하는 체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작년 기술유출범죄수사센터를 개설하였고, 다양한 수사기법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기술유출이 발생했는지 명확한 확인이 없더라도 기술유출이 의심스러우면 주저 없이 첨단범죄수사부 기술유출범죄수사센터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면서 피해회사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률상당에서부터 수사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이고도 신속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해봤자 하세릴 이 아니라 신속한 처리를 통해 회사의 핵심기술이 국내 또는 해외업체에게 넘어가는 것을 차단하겠습니다.

Q ■ 경영에 미숙한 일부 벤처기업의 경우 미처 시장변화, 기술의 변화를 몰라 유출시키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를 좀더 면밀히 규명하기 위해 첨단부에서 업계 리더, 전문가 등을 자문단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요.

A ■ 좋은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기술유출문제가 발생하면 업계 CEO와 관련 전문가들이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첨단부는 현재 해킹, 암호, 바이러스 등 IT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약하시는 열두 분을 '컴퓨터수사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상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이 발생되면 피해업체의 기술자를 통해 기술에 대한 1차 이해와 판단이 이뤄지고 객관성 유지를 위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기술분야의 전문가집단인 벤처기업의 자문이 이뤄진다면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Q ■ 벤처업계에 바라는 바가 있으면 말씀해주시오.

A ■ 최근 벤처기업의 중요성이 재인식되어 올해를 벤처기업 육성해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때 발생하는 기술유출범죄는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미래 우리나라 산업의 존립기반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 첨단부는 첨단기술유출범죄를 효과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수사체제를 확립하여 수사력을 강화하고, 피해기업이 신속한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신고절차를 개선하는 등 수사단서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첨단기술을 보유한 벤처기업과 벤처기업협회 등은 관련기관과 긴밀하고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 국가 경쟁력을 지켜내야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건전한 경쟁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모든 벤처기업이 각 부분에서 최고의 기업으로 발전하여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술 유출 주요 사례

- 첨단 핸드폰 제조기술 해외유출 기도사건(2004. 5.)
 - 대한의 한 회사가 국내 휴대폰업체 연구원 등 8명을 상대로 고액연봉 등을 제시하며 관련기술을 반출하려다 적발.
 - 이 기술은 200억원을 투입하여 수출을 저증생산을 위해 개발.
- 반도체 제조업체 웨이퍼 검사기술 해외유출미수사건(2004. 9.)
 - 국내 반도체 제조회사의 웨이퍼검사 기술자가 해외 경쟁회사로 검사기술을 유출하려다가 출국 2일전 검거.
 - 이 기술은 반도체 중간재인 웨이퍼의 불량률을 검사하는 기술로 기술의 정밀도에 비례하여 생산반도체의 품질에 결정적 영향.
- 온라인 게임개발업체 개발내용 유출 사건(2004. 10.)
 - 온라인 게임개발업체의 연구개발실장 등 직원 다수가 퇴사하면서 몇 년간 개발한 주요 게임 소스파일 그밖 대부분을 유출.
 - 피해회사는 이 유출사건으로 수출상당 등에 막대한 피해를 입음.
- 6세대 TFT-LCD 컬러필터 제조 기술 유출사건(2004. 11.)
 - 국내 벤처기업 대표가 국내 주요 TFT-LCD제조업체의 6세대 컬러필터 제조기술(개발비는 3천억대)을 대만회사로 유출하려다가 검거.
 - 기술유출시 심각한 국가적 손실 발생 예상.

연도별 기술 유출 범죄 적발 현황

구분	계
2000년	10
2001년	20
2002년	15
2003년	15
2004년 8월 현재	2
계	61

출처 : 대검찰청